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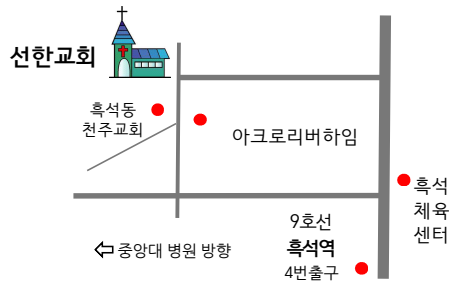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5째주 셀가족모임)	오전 11:00 바울회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30	파워틴 (청소년부)	오전 10:00 루디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30	청년부	오전 1:00 마리아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월-금요일 새벽 5:30	비전워십	오전 2:00 드보라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2:00 에스더회 오후 2:00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춘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배선
	교육목사 정용준	협력교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전임전도사 윤영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호남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상돈, 김대희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박희태, 유신웅		
	조윤익		
장 로	이태수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석규
	박영근, 윤호중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계승, 편도선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대하 15:7)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실 천 사 항 믿음의 선포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 11:26)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주일 예배	1부 오전 9:30 3부 오후 1:0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
기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양과 경배	29장 (통일찬송가 29장)		
교독문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찬양과 경배	461장 (통일찬송가 519장)		
기도	편도선 장로		
찬양	드림성가대		
성경봉독	히브리서 11장 24~28절		요 17:20~26
설교	모세의 믿음 (임춘배 목사)		영적 부자로 살기 (정용준 목사)
헌금	헌금송 : 김석범 집사		
환영 및 광고	인도자		청년부 회장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부르심		삶의 예배
축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도의 교제	다함께		

주일 오후	사회: 임춘배 목사		
찬양	Joy And 찬양팀		
기도	심인섭 집사		
말씀	이사야 13장 24~27절		
설교	앗수르에 대하여 받은 경고 (임춘배 목사)		
광고 및 축도	임춘배 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주소서 (시편 72편 1~20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안내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오늘 점심 봉사는 요셉회입니다. 3)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4) 주차 안내: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 성탄준비위원회	오늘 2부 예배 후 성탄준비위원회 중간 점검 회의가 있습니다. * 장소: 1층 안디옥실	
3. 성탄캠타	성탄절 캠타타에 함께 하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 연습 시간: 12월 10일까지 주일 오후 예배 후 한 시간 * 캠타타 발표일: 12월 17일 오후예배 * 문의: 김현석 집사	
4. 교회봉사직분신청	2024년도에 교회를 위해 봉사하실 분은 본당 입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반찬사역봉	반찬사역에 동참하실 분들(배달)을 모집합니다. 매 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흑석동 지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 식료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의: 구제부장 김기호집사	
6. 서울남부지방교회총회	12월 5일(화) 오전 11시. 안양성도교회(양희성 목사)에서 있습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세상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도록.
--------------	---

가정예배		기독교인의 세계관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통 495)		
본문	다니엘 10장 19절		
말씀	가난해 학교에 다니지 못한 한 그리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수위를 모집 하기에 응시했지만 이름밖에 쓸 줄 몰라서 떨어졌습니다. 낙심한 그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공부를 못 해 수위시험에도 떨어져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내적 음성으로 응답을 주셨 습니다. “내 계획은 다르다. 너는 미국에 이민 가라.” 그는 천신만고 끝에 미국 이 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손에겐 배우지 못한 슬픔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열심 히 일하며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중년이 되자 큰돈을 벌여 월가에서도 알아주는 인물이 됐습니다. 60세가 되자 고국에 돌아와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한 기자가 자서전을 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솔직히 말했습 니다. “나는 그리스어로 내 이름밖에 쓸 줄을 모릅니다.” 기자가 놀라며 말했습니 다. “만일 선생님이 그리스어를 알았더라면 이 나라에서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셨 을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랬다면 나는 기껏 은행의 수위장이나 됐을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자기가 믿는 세계관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세계관을 분류하면 먼저, ‘모든 것을 우연이나 요행으로 보는 세 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운명론에 빠져 점이나 주술의 힘을 의지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것이 일정한 자연법칙에 따른다고 보는 세계관’입니 다. 이 사람들은 ‘인과율에 따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과학적 이성적인 사고를 합 니다. 끝으로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은총 중심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은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행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자 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곧, 성공과 실패, 건강이나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냅니다. 은총 중심의 세계관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마 10:29) 둘째 ‘하 나님은 선하시다’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 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시 100:5)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입니 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롬 8:26) 우리는 은총 중심 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 가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모세의 믿음 (히 11:24~28)
서 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서 성도들은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본 론	1. 모세가 보여준 믿음 (1)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함(24절) (2)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함(25절) (3)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김(26절) (4)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음(27절)
	(5)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함(28절)
결 론	2. 교훈 (1)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2) 내게도 이런 믿음이 보여지고 있는가? (3)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실행해야 할 믿음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편도선 장로	윤호중 장로
2부 예배 헌금	백영미 집사	이소영 집사
오후 예배 기도	심인섭 집사	서창덕 집사
주 방 봉 사	요셉회	마리아회

매일 Q.T.		그리스도께 뿌리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	날짜 : 12월 4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본문	골로새서 2:1~15		
말씀요약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교묘한 말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죄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묵상질문 1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는 성도 2:1~5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들은 무엇인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으로 분별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십자가로 승리하심 2:6~15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이룬 일들은 무엇인가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나요?		
한절묵상	골로새서 2장 12절 침례는 죄 씻음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공동체 앞에서 시인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이기신 주님과 단단히 연합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본주의나 헛된 것의 현혹을 물리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부요함을 누리게 하소서. 제 마음과 삶이 주님 말씀에 뿌리내리고 굳게 서서,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위의 것을 찾으라”	
찬양과 기도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새 235) 하늘 위에 주님밖에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미국 시인이자 수필가인 캐슬린 노리스(Kathleen Norris)는 「놀라운 은혜」(Amazing Grace)라는 책에서 자신의 언어로 천국을 정의합니다. 베네딕도 수녀회의 한 수녀가 병원 침상에 누워 임종을 기다리는 자기 어머니와 천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녀는 어머니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려고 “어머니, 천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있습니다(In heaven, everyone we love is there).”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 내쉬며 딸에게 간신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딸아, 아니란다. 천국에서는 내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거야(In heaven, I will love everyone who's there).” 딸이 생각하는 천국과 어머니가 생각하는 천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딸이 착각하는 것처럼 천국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에게 맞는 사람만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인종과 성별, 나이와 계급 등에 상관없이 누가 있든지 모두를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살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곳은 어디든지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을 미워하는 곳은 어디든지 지옥이 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 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천국의 삶입니다. 오늘 나는 일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 나누기	골로새서 3:1~11
묵상포인트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등 땅에 속한 것을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땅의 것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를 따라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거룩한 삶은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바라보든 사람은 보는 것을 닮고, 바라보는 그곳에 거합니다. 차별 없는 복음에 감사하며, 변화된 새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가 추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4절)
적용하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과감히 버릴 것과 더욱더 추구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소서.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주님을 섬기듯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날짜 : 12월 8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본문	골로새서 3:18~25		
말씀요약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습니다.		
목상질문 1	가정생활의 윤리 3:18~21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가족 안에 사랑과 존중이 확대되도록 내가 더 노력할 점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사회생활의 윤리 3:22~25 상전이든 종이든 불의를 저지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나요? 나는 하나님이 세워 주신 지도자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나요?		
한절묵상	골로새서 3장 22~23절 '마음을 다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영혼으로부터'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영혼으로부터 진심으로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주님을 섬기는 일로 만드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인구 절반이 노예였던 시대에 바울은 노예의 일조차 마음 다해 주님께 하는 일이 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떤 직분과 직책을 가졌던 성도는 그 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무엇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인생임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배우자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듯 자녀를 존중하며, 주님을 경외하듯 정직하게 일하게 하소서. 속사람을 살피보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녀로 살게 하소서.		

매일 Q.T.		초등 학문 같은 지식에서 십자가의 완전한 지식으로	날짜 : 12월 5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본문	골로새서 2:16~23		
말씀요약	바울은 장래 일의 그림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고 연합해 자라납니다. 우리는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한 대 쓰이고 없어지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더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목상질문 1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 2:16~19 골로새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은 어떤 것들을 가르쳤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가르침을 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목상질문 2	극단적 금욕주의의 실체 2:20~23 바울이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른 경건에서 벗어난 잘못된 금욕주의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절묵상	골로새서 2장 23절 성도는 영적으로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의적 숭배'(꾸며 내 경건)란 자기 뜻대로 갈망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금욕주의처럼 잘못된 갈망은 자기 몸만 괴롭힐 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모양'에 해당하는 헬라어 '로고스'는 '말, 소문'등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럴싸한 말이나 소문을 기준으로 삼는 신앙생활은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삶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며 날마다 강건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쫓거나 위선적인 경건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다르심을 받게 하소서. 진리는 날카롭게 분별하고, 은혜는 순전하게 채워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매일 Q.T.		땅의 것을 멀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날짜 : 12월 6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본문	골로새서 3:1~11		
말씀요약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묵상질문 1	땅에 있는 것들의 목록 3:1~6 땅에 속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내가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기 위해 버릴 것들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새사람의 규범 3:7~11 새사람은 인종, 종교, 문화, 신분 등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나요? 내가 차별이나 구별을 버려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골로새서 3장 1절 성도가 항상 추구할 것은 '위의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 계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 땅의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열정적으로 예수님만 찾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일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오늘 제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여전히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추악한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악에는 죽고 말씀에는 살아 있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매일 Q.T.		평강으로 한 몸을 이루고 감사로 노래하는 공동체	날짜 : 12월 7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본문	골로새서 3:12~17		
말씀요약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들은 긍휼과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또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씀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며,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에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묵상질문 1	새사람이 입을 새 옷 3:12~14 성도가 입어야 할 '새 옷'은 어떤 것들인가요? 불평이 아닌 용납과 용서를,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묵상질문 2	평강과 감사와 말씀이 가득한 삶 3:15~17 성도는 어떤 신앙 공동체를 추구해야 하나요?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고, 입술에 감사가 가득한 삶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한절묵상	골로새서 3장 13~14절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납과 용서는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용납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지지해 주며, 힘듦을 견디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신이 값없이 받은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온전한 용납과 용서는 공동체를 사랑으로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유대인이 띠를 매어 의복 착용을 완성하듯, 성도는 용납과 용서를 실천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을 완성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로 메말라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택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게 하소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